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報 道 資 料

[2011. 3. 25.]

보도시점	배포 즉시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전화번호	042-481-4950 042-481-4952
담 당 자 (e-mail)	이주헌(heun0530@ocp.go.kr) 김응서(pkimes08@ocp.go.kr)	F A X	042-481-4959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 국가유산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 에 동시게재

조선전기 세총통 등 총통류 일괄 출토

- 서울 세종로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발굴조사 -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의 발굴허가를 받아 (재)한울문화재연구원(원장 김홍식)이 발굴조사 중인 “서울 종로 세종로지구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에서 조선전기 사전총통(四箭銃筒), 신제총통(新製銃筒), 세총통(細銃筒) 등 총통류 다수가 출토되어 붙임자료(한울문화재연구원 작성)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발굴조사 개요

○ 조사지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원, 4,272㎡

○ 조사기간 : 2010. 10. 7 ~ 현재

○ 조사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조사성과

- 조선전기 사전총통(四箭銃筒), 신제총통(新製銃筒), 세총통(細銃筒) 등 19점 확인

위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한울문화재연구원(최종규 ☎ 010-3299-11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부. 끝.

서울 종로 세종로지구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발굴조사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유물이 출토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원으로 “종로 세종로구역 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이다. 대상지역 동측 경계에는 청계천의 원류인 백운동천이 위치하고, 북동측에는 조선시대 육조(六曹) 중 하나인 공조(工曹), 장예원 등이 위치해 있었으며 남측으로는 신문로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2010년 10월 7일부터 시작하여 1차적으로 조선후기~일제강점기 관련 유구들을 조사하였고, 이후 조선중기(17~18C) 문화층을 조사하였으며, 현재는 지표에서 약 1.8m 내외 깊이의 조선전기~중기(16C말)로 추정되는 문화층을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건물지 15개소와 도로, 배수로 등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동측 경계에서는 백운동천의 호안석축 뒷채움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종로구 당주동 28번지에서 확인된 건물지 기단 전면에서 조선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총통 19점이 일괄로 발견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 중 5점은 낱개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3덩어리로 총통들끼리 고착되어 출토되어 향후 보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육안으로 확인되는 명문의 내용 및 개별 유물들의 재원을 통해 출토된 총통은 크게 사전총통(四箭銃筒), 신제총통(新製銃筒), 세총통(細銃筒) 등 3종류로 분류된다.

사전총통은 길이 25~26㎝, 총구지름 2.2㎝, 중량 816~864g으로 죽절형태의 통신과 약실 그리고 자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은 3마디 반의 대마디이고 약실은 통신보다 약간 두툼하게 제작되었다.

신제총통의 경우 길이 20㎝, 총구지름 1.3~1.4㎝, 중량 383~394g이다. 역시 죽절형태의 통신과 약실 그리고 자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루를 끼울 수 있도록 살짝 벌어지게 제작한 병부에 ‘新製’로 추정되는 양각의 명문이 남아있다.

세총통은 현재 한 점이 확인되었다. 길이 13.8㎝, 총구 지름 0.9㎝, 중량 135g이며 별도의 자루부분 없이 통신과 약실로 구성되었다. 통신보다 다소 두껍게 제작된 약실의 상부에 선혈을 뚫어놓았다. 조선 세종 때 서북 변경의 야인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휴대용 소형 화기이다. 소화포(小火砲)·세화전(細火箭)이라고도 한다. 세종이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화약의 개량과 화기의 일발다전법(一發多箭法)을 연구하게 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

세총통은 총통 중에서 가장 작은 종류의 화기로, 세종 14년(1432)에 만들었으나 사정거리가 겨우 200보 밖에 되지 않아서 존폐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1]의 「군례세총통조(軍禮細銃筒條)」에 보면, 제원(諸元)은 약통장(藥筒長), 격목통장(檄木筒長), 취장(觜長) 등으로 구분하고, 길이는 4치 4푼 8리, 무게는 3량 5전이라 하였고, 발사물로는 차세전(次細箭)을 사용하고, 발사할 때는 총통을 철흠자(鐵欠子:집게)로 집어 발사한다 하였다.

---

1)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으로 신숙주 등이 오례의 서례를 정한 책.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의 서례를 정하고 각기 도설(圖說)을 붙였다. 성종 5년(1474)에 간행되었다. 5권 2책.

구 분	국조오례의 기록	출토유물 제원(보존처리 전)
사전총통	길이 : 8촌4분2리(26.1㎝) 구경 : 7분(2.2㎝) 중량 : 1근6량(883g)	길이 : 25.8~26.5㎝ 구경 : 2.2㎝ 중량 : 816~864g
신제총통	길이 : 6촌3분(19.5㎝) 구경 : 4분(1.2㎝) 중량 : 10량(401g)	길이 : 20㎝ 구경 : 1.3~1.4㎝ 중량 : 383~394g
세총통	길이 : 4촌4분8리(13.9㎝) 구경 : 2분 7리(0.8㎝) 중량 : 3량5전(140g)	길이 : 13.8㎝ 구경 : 0.9㎝ 중량 : 135g

세총통으로 기존에 알려진 유물은 육군박물관 소장품(보물 제854호, 1986년 3월 14일 지정)이 대표적이다. 육군박물관 소장품은 세총통은 세종 때 만든 휴대용 화기로 길이 13.8㎝, 안지름 0.9㎝, 바깥지름 1.4㎝이다. 모양은 화약을 넣는 약실과 화기의 몸체인 총신 사이에 2개의 마디를 두고 약실 부분은 약간 도톰하게 만들었다.

이들 총통들은 15~16세기에 제작되고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출토된 문화층이 16세기 말기로 추정되어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유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중앙 관청인 육조 중 하나인 공조(工曹) 및 장예원(掌隷院:노비에 관한 문서 및 소송사무 관장)에 인접한 조사지역에서 출토된 점 등 이 유물들이 왜 조사지역에서 출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 등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들 유물들은 향후 조선 전기의 무기 제조 및 체계 등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휴대용 화기로 가장 소형인 세총통은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보물 제854호로 지정되어 있는 육군박물관의 소장품과 비교되어 더욱 주목된다.

<그림 3. 총통류 출토 장면>

<그림 4. 세종로 2지구 출토 각종 총통류>

<그림 5. 세총통, 육군박물관 소장품(보물854호)>

<그림 6. 세총통, 세종로 2지구 출토품>